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세대 간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 대학생과 중장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경 범

2020년 8월

세대 간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 대학생과 중장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관 우

김 경 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김경범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8월

The Effects of Generational Welfare
Attitudes on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 Focus on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in Jeju

Kyeong-Beom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wan-Wo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II . 이론적 배경.....	5
1. 세대의 개념.....	5
2. 노인부양의식.....	6
1) 노인과 노인부양의식.....	6
2) 노인부양의식 선행연구.....	15
3. 복지태도.....	19
1) 복지태도와 구성요소.....	19
2) 복지태도 선행연구.....	22
III . 연구방법.....	28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8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9
1) 연구모형.....	29
2) 연구가설.....	30
3. 측정도구.....	31
1) 종속변수.....	31
2) 독립변수.....	32
3) 통제변수.....	33
4. 분석방법.....	34

IV. 연구결과.....	3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주요 변인의 집단 간 차이 검증.....	38
1) 세대 간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3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39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48
4. 주요 변인 간 영향 요인 분석.....	50
1) 경제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50
2) 정서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52
3) 신체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54
V. 결론 및 제언.....	56
1. 요약.....	56
2.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6
<부록>설문지.....	69

<표 목차>

<표 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8
<표 2> 부모부양 책임자.....	12
<표 3> 부모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3
<표 4>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 동향.....	25
<표 5> 설문지 배포 및 회수.....	28
<표 6> 척도 구성 및 신뢰도.....	29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 8> 주요 변인의 점수 분포.....	38
<표 9> 세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39
<표10>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 분석.....	42
<표11>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 분석.....	43
<표12>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 분석.....	46
<표13>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 분석.....	47
<표14>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49
<표15> 경제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51
<표16> 정서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53
<표17> 신체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55

[그림 목차]

[그림 1]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	14
[그림 2] 생활비 마련 방법.....	14
[그림 3] 연구모형.....	29

국 문 초 록

세대 간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 대학생과 중장년을 중심으로

김 경 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 관 우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부양의무세대인 중장년과 미래의 부양의무세대인 대학
생의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인 복지
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과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
의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내 대학생 153명, 중장년 151명,
총 304명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 모두 복지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에 민감한 중장년 세대가 대학생 세대에 비해 복지태도의 모든 하위 요
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세대는 부모와 동거할 때, 복지에 대한 선호 및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중장년 세대에서 40대가 50대에 비
하여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세
대 간 비교에서는 현재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중장년 세대가 대학생 세대에 비
해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양의식 모두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세대는 주관적 가
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는 부

부모와 동거일 때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활동경험이 있을 때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경제적 부양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세대가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정서적 부양의식과 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세대 간의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차이가 있으며,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면 제주지역에 적합한 공적부양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복지태도, 노인부양의식, 대학생 세대, 중장년 세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심각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68만 명에서 2025년 약 1,051만 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약 1,900만 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1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이 예측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67년 62.7세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019년 약 71만 명이었던 8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규모가 2050년에는 약 405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윤경 외, 2019).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어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성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차이로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삼식 외, 2015).

인구구조의 변화로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부양에 대한 태도는 약화되고 있다. 산업화와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전통적인 효사상이 약화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노인부양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정혜선 외, 2011).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 부양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전화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공적부양체계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밀하게 준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가현, 2017).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관련 정책을 다수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인 치매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관련 복지예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의 지지와 비용 부담이 필요하게 된다(이윤경 외, 2019). 국가와 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며 그것을 뒷받침 하는 것은 복지태도라 볼 수 있다.

복지태도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문제 역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복지태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준용, 2015).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연대, 평등, 분배정의와 같은 규범적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이란 실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 복지 친화적인 태도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최균·류진석, 2000; 김영순·여유진, 2011).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의 복지태도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노인부양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복지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노인부양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부양의식과 관련된 요인의 상관성 및 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노인관련 경험 변인, 가족관계 관련 변인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견해(진달래, 2013; 서용숙, 2014)와 효이데올로기, 애착이론, 교환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견해(최정혜, 2009; 강선아, 2013; 김나래, 2016)와 부모의 노후준비 정도를 고려한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가현, 2017). 반면 세대 간의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반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량이 더 요구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는 복지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 양상은 달라 질 것이다. 복지에 대한 각각의 세대들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의 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찬반이 뒤 따를 것이며,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김가현, 2017).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인부양의식과 맞물려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

된다.

현재의 노인부양의무자인 중장년 세대와 미래의 노인부양의무자인 대학생 세대는 노인부양을 해야 하는 시기만 다를 뿐 공통의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다. 각 세대의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체계 마련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부양문제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청년 세대의 자립이 늦어지고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부모세대는 성인자녀와 자신들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어 자신들의 노년기를 준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수진, 2017).

과거와 달리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산업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이 퇴색되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노인부양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을 나누고 책임져야 하며, 그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준비가 필수적이다(김나래, 2017).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체계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며 이를 지지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의 복지 친화적인 태도와 지지가 요구된다(김영란, 1995; 류진석, 2004; 김신영, 2010; 이준용,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또는 미래에 노인부양을 해야 하는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고, 세대 간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 차이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복지에서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지역에서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대의 개념

세대의 개념은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관점에서 Marias(1970)는 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생애주기로 보았으며, 75세까지의 연령을 15세 간격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사회역사적관점에서 세대의 개념은 Mannheim(1952)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경험적 성층화로 설명하였다(박재홍, 2005; 여승현, 2016 재인용).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시기에 공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며, 보통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을 말한다. 세대는 기본적으로 사회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최향순·송용찬, 2011; 고관우·남진열, 2018). 특정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 가치관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며, 이러한 특성은 각 세대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김영순·노정호, 2017; 고관우·남진열, 2018). 세대의 고유한 특성은 각 세대가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하며, 이는 사회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록·김형관, 201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기에 세대 간 의식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최유석, 2011).

현재 우리사회는 경쟁과 압박, 고용 불안정, 결혼지연, 사회적 고립 등으로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며, 노인세대에 대한 복지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불만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민선, 2020 재인용). 노인부양에 있어서 현재의 의무세대인 중장년과 미래의

의무세대인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과 공적부양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하다.

중장년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장년은 인생의 전환기이며(권중돈 외, 2008), 생활연령 측면에서 학자에 따라 35세부터 또는 44~65세까지의 시기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이운해, 2018). 가족주기의 관점에서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이며, 신체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임선미 외, 2015).

중장년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인정 등(2009)은 30~60세, 강기정 등(2011)은 35~65세, 최덕경 등(2013)은 50~60세, 박한준 등(2014)은 40~60세 사이를 말하고 있다(이운해, 2018 재인용). 중장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대한 정의를 노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사이에 놓인 40,50대의 성인 남녀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대상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령기에 대학을 다니는 20대 청년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노인부양의식

1) 노인과 노인부양의식

(1) 노인과 노인부양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노년학회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기관과 조직 및 기능의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체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최윤지, 2019).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기초연금법·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하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를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김나래, 2017).

부양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돌보는 경우를 말한다(박수진, 2018). Bergman(1978)에 의하면 부양이란 한 개인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는 과정을 의미하며, Kaplan(1982)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미할 수 있는 사람과 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하며, Warren(1981)은 물질적 원조, 신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위로와 시중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Drentea(2007)는 ‘신체적, 심리적, 발달적 욕구를 지닌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무보수형태의 행위’로 정의했다. 부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정서적 지원, 자원의 제공, 대인관계 형성, 일상생활수행 등을 제공하는 도움행위로 볼 수 있다(김가현, 2017).

인간 사회에서는 자연적·사회적 원인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발생되기 마련이며, 이들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보편적인 부양의 형태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부양이며, 최근에는 가족 부양의 역할을 대신하여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는 공적부양체계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박수진, 2018).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개인과 가족적 측면의 문제와 국가적 측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적 측면에서는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양으로 인해 가족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빈번해지고, 중장년 세대의 경우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미성년 또는 미혼의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수의 생산가능 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한정된 국가의 재원에서 노인부양을 위한 지출 부담도 커질 것이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세대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최나래, 2017).

<표 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67년

(단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 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6.9	36.7	38.6	53.0	77.5	95.0	108.2	120.2
노령화 지수	6.9	7.2	11.2	20.0	34.3	67.2	105.1	129.0	259.6	345.7	447.2	546.1	574.5
노년 부양비	5.3	5.7	6.1	7.4	10.1	14.8	18.8	21.7	38.2	60.1	77.6	91.4	102.4
유소년 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0	17.9	16.9	14.7	17.4	17.4	16.7	17.8

출처: 통계청(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표1-9> p.17.

(2) 노인부양의식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조지현, 2011; 김가현, 2017). 이병순(2006)은 노인부양의식을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 또는 노부모의 복지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 의무감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정화(1999)는 노인부양의식에 대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로 정의하였고, 이호정(2008)은 부모 또는 노부모,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행동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제공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일체의 도움이라 정의하였다. 즉, 노인부양의식은 노인에 대하여 부양자가 가지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며, 부양 행동 및 형태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태도와 의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가현,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모부양, 노부모부양, 노인부양을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노인부양의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과거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의식은 유교사상에 근거한 전통적 규범인 효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남과 배우자에게 보상의 의미로 더 많은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노인부양의식과 기능은 약화되었고, 산업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속감도 많은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박수진, 2018).

부양의 형태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보충성의 원리이기에 사적 부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공적부양을 하고 있다(김나래, 2017). 노인부양도 마찬가지로 우선 책임은 개인과 가족이며, 개인과 가족이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개입을 하게 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국가와 사회의 공적부양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부양의식은 부양 형태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자립과 가사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 받는 신체적 부양, 노인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정서적 부양, 금전이나 현물 등 제공받는 경제적 부양으로 크게 나뉘어서 볼 수 있다(조지현, 2011; 김가현 2017).

가. 신체적 부양의식

노인은 신체기능과 정신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신체적 의존성이 심해질수록 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다(박수진, 2018). 따라서 신체적 부양의식은 노인이 스스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박민지 외, 2014).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이 원만하도록 신체적 거동이나 가사운영에 필요한 요리, 장보기, 식사, 목욕, 세탁, 청소, 심부름, 보살핌, 시중 등을 제공하는 부양을 신체적 부양이라 할 수 있다(최윤지, 2019).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의 시중을 드는 것을 중요한 덕목이라 여겼으며,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혹은 직계가족이 대부분이었기에 부모에 대한 신체적 부양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었다(김가현, 2017). 현대사회에선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자녀의 분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진, 2018).

나. 정서적 부양의식

노년기에는 사회생활과 단절로 인한 고독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노후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위로와 인격적 대우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서적 부양이라 할 수 있다(서희영, 2014). 노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타인과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박수진, 2018).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정서적인 역할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체적·경제적 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공적부양체계의 성숙도에 따라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지만 정서적 부양은 대부분 가족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해 충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김가현, 2017).

다. 경제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은 노인에게 빈곤, 질병, 고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후 생활의 안정에 우선적인 조건이다(김나래, 2017).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건강의 유지, 여가활동 및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부양의 형태라 볼 수 있다(서희영, 2014).

과거 전통사회에는 가정의 원로인 노인이 가부장권, 재산권, 가사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은 효도라는 측면에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게 되는 구조를 가졌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적부조보다 사적부조가 절대 다수이며,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은 퇴직 후 수입의 절감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박민지 외, 2014).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부양의 대부분이 경제적 부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민지 외, 2014; 김가현, 2017).

중장년 세대의 경우 노부모 부양을 해야 하는 시기와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주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김가현, 2017).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 주체는 크게 국가와 가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국가는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가족은 전통적인 효사상에 근간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부양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친족 간 부양의무가 명시된 민법의 법적인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부양을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적부양,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부양 또는 사적부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노인부양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두 주체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히 요구된다(김나래, 2017).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부양의 형태였으나, 가족주의 약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법과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부양은 점차 감소하고 국가 및 사회에 의한 공적부양이 증가하고 있다(김유경, 2016).

부양의식의 변화를 보면, 가족이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등이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부모부양의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인식은 1998년 89.6%, 2010년 36.0%, 2018년에는 26.7%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1998년 8.1%에서 2018년에는 19.4%로 크게 늘었다. 부모부양의 책임이 사회 등에 있다는 인식은 1998년 2.0%, 2010년 51.3%, 2018년 54.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양의식에 대하여 달라진 세태를 확인할 수 있다(김가현, 2017; 통계청, 2018).

<표 2> 부모부양 책임자¹⁾

(단위: %)

연도	1998	2002	2006	2010	2014	2016	2018
가족	89.9	70.7	63.4	36.0	31.7	30.8	26.7
스스로 해결	8.1	9.6	7.8	12.7	16.6	18.6	19.4
사회·기타 ²⁾	2.0	19.5	28.7	51.3	51.7	50.6	54.0

주1) 분석대상은 199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2018년은 13세 이상 인구.

주2) 기타에는 스승 및 선후배 포함.

출처: 통계청(1998~2018). 사회조사. 2018.

<표 3>의 복지인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33.7%, 2013년 30.3%, 2016년 28.1%, 2019년 20.2%로 점차 감소했으며,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7.1%에서 2019년 3.1%로 감소하였다. 부양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도 2010년 2.0%에서 2019년 5.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족부양을 우선시 하였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수진,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표 3> 부모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 분	2010	2013	2016	2019
매우 동의한다	7.1	5.2	5.0	3.1
동의한다	33.7	30.3	28.1	20.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2.4	28.5	32.0	35.7
반대한다	34.0	33.4	31.8	35.1
매우 반대한다	2.0	2.6	3.0	5.8
모름/무응답	0.7	0.0	0.0	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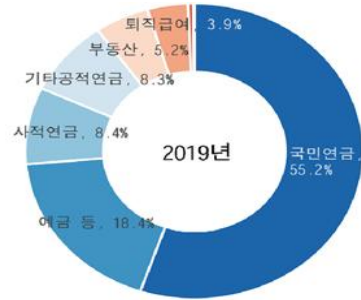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고정된 수입이 없어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인의 빈곤의 이유로는 조기 은퇴,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의 미흡, 자녀 양육 및 자녀의 결혼 등에 지출로 인한 저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김나래, 2017).

통계청의 노후준비여부 및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65.1%이며, 19세 이상에서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2009년 46.7%에서 2019년 5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이 5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적 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공적부양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통계청, 2019).

< 노후준비여부 「준비하고(되어)있음」 >



< 노후준비방법(2019)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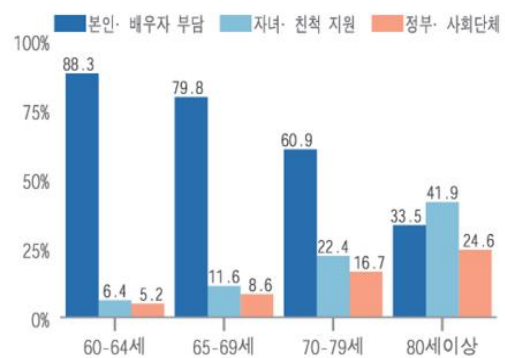
[그림1]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

통계청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9.9%,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17.7%, ‘정부 및 사회단체’가 12.4%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이나 ‘정부 및 사회 단체’의 지원을 받는 비중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라진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9).

< 생활비 마련 방법 >



< 연령별 생활지 마련 방법(2019)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그림2] 생활비 마련 방법

2) 노인부양의식 선행연구

(1) 효 사상

효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공경의 마음가짐으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에 의하여 주장된 덕목이자 유학적 가치관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덕행의 근본이며, 모든 교화의 근본이자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성적인 것으로 보았다. 효 사상은 동양 문화권에서 사회적 규범의 기초, 도덕적 판단의 기준, 도덕적 질서의 보편적인 원리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효 사상은 자녀의 희생, 책임, 보은의 행동지향적인 효 의식과 가족문화,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구성된 정서 지향적 효 의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효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강조한다는 특성을 보이며, 개인의 희생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김가현, 2017 재인용).

우리나라의 효 사상은 현재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족의 개념이 약화되고, 제사조식이 와해되면서 전통적인 효도관이 미약해지고 노인부양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수진, 2018).

(2) 애착이론

애착이란 Bowlby(1969)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 타인과 강한 애정적 유대를 맺으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정의되며, 자신과 특정 타인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 일평생에 걸쳐 형성되며 유지된다는 전생애적 관점의 이론이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인식에 영향을 주며, 이는 성인기의 정서적·인지적·대인관계적 지표가 된다.

애착형성의 결과가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에 일반적인 인식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Cicirelli(1983)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여도 애착이 유지되는 것은 성인기의 상징적 애착체계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애착이론이 성인자녀가 노부모부양을 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

하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애착은 생애전반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체로써 부양에 대한 동기로 볼 수 있다(강선아, 2013; 박수진, 2018). 산업화 이후 친족의 개념이 약화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부모부양에 있어 전통적인 효사상보다는 애착에 근거한 정의적 관계가 우세해졌으나, 현재 애착이론만으로 부모부양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가족 간의 관계는 경제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교환적 관계로 변화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김가현, 2017 재인용).

(3)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1960년대 초반 Blau(1964)와 Homans(1961)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며, 모든 인간관계는 재화나 자원을 주고받고, 호혜성은 인간관계의 근본원칙이며, 투자와 보상이 교환되는 인간관계에서 공평과 정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박수진, 2018).

교환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에 인간은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김가현, 2017; 박수진, 2018).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교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도움은 투자이며, 성인이 된 자녀가 노인된 부모에게 재정적 도움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은 보답이라 볼 수 있다. 교환이론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의 부모 부양은 현재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에 기초한 부양관계라고 할 수 있다(전성표, 2005; 박수진, 2018).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교환관계라는 관점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써 따르는 보상에 대한 지각, 비용지각의 개념을 부담감과 보상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의 부족, 육체적 어려움, 긴장감, 경제적 비용,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부담감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부양에 의한 관계의 증진, 자녀의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만족감, 노부모로부터의 육아와 가사의 도움, 가

족이나 사회로부터 부모를 잘 모신다는 인정 등을 보상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상림, 김두섭, 2002; 김가현, 2017).

성인자녀와 노부모 관계에 특별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서구사회에서는 자발적인 인간관계로 생각함으로써 노인의 지위 약화를 노인이 지닌 교환자원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교환관계의 대부분이 교환자원의 불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양관계는 완전하게 교환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교환이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서구화 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박수진, 2018).

약화는 되었으나 제사를 통한 효 사상의 실천이 존재하며, 제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가 혼합된 중간 단계로 파악된다(김가현, 2017).

(4) 노인부양의식 선행연구 고찰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이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노부모들은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고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부양의식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관련 경험 변인, 가족관계 변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수진, 2018).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나(김용순, 2001; 송근자, 2004; 권기갑, 2009; 진달래, 2013), 일부에서는 성별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이용호, 2005; 정창수, 2009). 출생순위에서는 김용순(2001)은 맏이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다고 보았으나, 이신호(2002)는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용호, 2005; 정창수, 2009).

노인관련 경험 변인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지식이 많을 경우 노인부양의식이 높으며(김용순, 2001; 박문규, 2007; 진달래, 2013), 노인관련시설에 실습 또는 봉사활동과 노인부양의식의 관계에서는 권기갑(2009)은 높게 측정되었으나, 진달래(2013)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가족관계 변인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김용순, 2001; 김지영, 2001; 박문규, 2007; 권기갑, 2009; 서용숙, 2014).

강선아(2013)는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자녀가 노인부양의식이 높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김가현(2017)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게 된다고 보았다. 기존의 가치관을 근거로 연구한 것과는 달리 고관우 등(2018)은 특정 지역의 생활문화를 변인으로 보았고, 세대 간 생활문화 변인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노인부양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친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복지태도

1) 복지태도와 구성요소

(1) 복지태도의 개념

Fishbein and Ajzen(1975)은 태도를 인식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모습을 결정하고 사회적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류진석(2004)은 태도를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의 하위체계로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선호 여부의 반응이라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태도의 개념은 태도의 형성, 태도의 결과, 태도의 기능, 태도의 체계, 지속적인 선호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이준용, 201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복지태도와 복지의식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고, 태도와 의식의 의미가 서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되었기에 학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된다. 김영순과 여유진(2011)은 ‘복지의식’을 복지제도 또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 내용이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하였다(이준용, 2015).

Taylor-Gooby(1985)는 복지비용, 세금문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당위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향을 복지태도라고 규정하였으며, 신광영 등(2000)은 복지의식을 인간의 행동, 의식작용, 주관적 결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상미, 2016).

김상균과 정원오(1995)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복지제도 또는 사회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보이는 반응을 복지의식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류진석(2004)은 복지제도와 복지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의 학습된 경향으로 복지의 제반에 대한 선호 여부를 복지태도라 정의하였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복지태도는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함께 복지규범, 분배정의 등과 같은 가치적인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준용, 2015).

여러 연구자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지태도는 사회의 제도적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증시시킨다. 둘째,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성격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복지태도는 사회복지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결정이나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준다. 넷째, 복지태도는 개인적 성격보다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된다(김영란, 1995; 이인재, 1997; 류진석, 2004; 이준용, 2015).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였고(이준용, 2015), 복지태도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인식하는 복지비용, 복지기능의 정당성 등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내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2)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복지태도를 범주화하는 것은 복지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류진석, 2004; 이준용, 2015). 광범위한 복지 영역에 대한 태도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희자, 2013). 복지태도는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재분배 원칙에서 개별복지정책과 개별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기에 복지태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다시 범주화하는 선택이 뒤따르게 된다(노대명·전지현, 2011).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반해 복지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범주화는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이준용, 2015).

Taylor-Gooby(1985)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소득의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으로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고, Svallfors(1995)

는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한 복지태도 연구에서 복지 영역별 재정지출, 서비스 전달주체의 합당성, 재정부담에 대한 주체, 복지서비스의 남용 등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였다. Anderß, H. and Heien(2001)은 복지국가의 기능, 복지국가의 효과, 복지국가의 수단, 복지국가의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하였다(김상미, 2016 재 인용).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김영란(1995)은 복지태도를 세금증감, 복지비용의 증감, 공적복지와 사적복지에 대한 선호,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다. 우아영(2002)은 사회적 형평성 및 평등성, 복지에 대한 책임주체, 정부의 역할, 사회보험료 인상, 정부재정, 세금징수의 6개 영역으로 나눠 보았으며, 노대명과 전지현(2011)은 재분배원칙, 개별제도, 재정부담의 3요소로 범주화하였다. 그 외로 국내 연구에서 복지의 책임주체, 세금증가는 주로 활용되는 측정영역이다(이인재, 1997; 조돈문, 2001; 이준용, 2015).

한편 류진석(2004)은 복지태도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제도의 수용으로 5개의 구성요소로 유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복지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를 의미하며, 복지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복지공급의 책임성은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공급 주체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며, 그 선호 여부에 따라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으로 구분하게 된다. 셋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복지에 대한 실천의지와 연관되기에 복지태도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다. 넷째, 복지제도의 선호성은 선호하는 복지원리에 따라 복지대상의 범위, 서비스의 성격, 제공자의 역할 등이 달라지므로 복지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와 확대와 연관되기에 실천적 지향을 의미한다(이준용, 2015).

본 연구에서는 류진석(2004)과 이준용(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복지태도의 하위 구성요인을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의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2) 복지태도의 선행연구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는 변수중심적 접근과 이론중심적 접근으로 구별되며,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 교육과 같은 요인 중심에 따른 복지태도 연구, 이론적 관점에서 계급에 따른 복지태도 연구, 복지권과 복지지위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김상미, 201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성별, 연령, 소득, 교육이 변수로 활용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족 보호의 부담으로 남성보다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서구사회에서는 보았으나(Kluegel and Miyano, 1995; Svallfors, 1997; Elund, 1999),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최균·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이한나·이미라, 2010; 이준용, 2015).

연령의 경우 경제적기반이 취약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초기 국내연구에서는 연령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보았다(김상균·정원오, 1995; 이인재, 1998; 이성균, 2002). 그 이후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결과(김신영, 2010; 이아름, 2010)와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결과(주은선·백정미, 2007)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이준용, 2015).

교육의 경우 Andreß, H. and Heien(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국내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의 책임주체는 국가라는 연구결과(최균·류진석, 2000; 류만희·최영, 2009)를 보였다.

소득의 경우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집단의 복지태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이인재, 1998)가 나왔으며, 중상류계

층에 비하여 하류계층의 복지태도가 평등·지향적이고 복지의 주체를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김상균·정원오, 1995). 반면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에 비하여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김영순과 여유진(2011)의 연구결과가 있다.

(2) 가치지향 요인

Briggs(1961)는 복지국가를 국민의 욕구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보았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대한 논쟁은 결국 복지국가가 평등과 불평등의 축에서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가치지향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준용, 2015 재인용).

Blekesaune and Quadagno(2003)는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으로 가치관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복지국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의존적 성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유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복지태도를 갖는 되는 요인은 개인의 가치나 이념 때문이며, 이념적 갈등은 국가자원의 배분과 배분문제를 통해 표출된다. 분배에 관한 논의는 항상 가치판단과 관련되며,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김상균·정원오, 1995). 다시 말해서 분배정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에서 발생하기에 사회구성원의 인식 반영은 필연적이다(최균·류진석, 2000).

류진석(2004)은 복지태도는 학습 또는 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노대명 등(2011)은 개인의 성장과정에 형성된 가치와 규범이 분배정의의 문제를 해결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보았다.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원의 분배정의가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구성원의 가치지향 요인은 복지태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준용, 2015)

(3) 이해관계

급속한 사회변화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이 과거와 달리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낳았고,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이나 자원 등을 차지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가치와 수단 양립 불가능을 의미하며,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에서 발생된다(김태홍 외, 2005).

Coser(1956)는 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된 체계 사이에서 이익의 불균형 또는 갈등을 나타낸다.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갈등은 자기이해로 표현되며, 자기이해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므로 그 사회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일차적 동기로 이해관계를 보는 것은 타당하다(이준우 외, 2012; 이준용, 2015).

Andreß, H. and Heien(2001)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책을 반대한다고 보았다. 김사현(2010)은 자기이해를 계급론적 설명방식, 위험론적 설명방식, 제도주의적 설명방식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복지제도를 노동계급의 투쟁 결과물로 보기에 노동계급에서 복지정책 선호가 높다고 보았다. 둘째, 복지제도를 사회보호체계로 보기에 소득손실의 위험이 큰 집단일수록 복지정책 선호가 높다고 보았다. 셋째, 수혜자와 기여자로 구분하는 제도주의적 복지제도에서는 수혜자는 복지정책을 선호하지만, 기여자는 비용부담 때문에 복지정책을 반대한다고 보았다.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의 우호적인 태도와 지지로 확인되며, 이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이준용, 2015).

(4)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4>와 같다. 김상미(2015)는 개인 또는 국가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차원과 복지비용부담에 따른 복지실천의지 차원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태도를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하였다. 네 가지 유형은 국가주도 연대형, 민간주도 연대형, 국가 의존 소극책임형, 민간의존 소극책임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유형은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을 지지하고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수용하는 국가주도 연대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맞춰 정부는 노후의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20.05.08).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복지 친화적인 태도와 비용부담에 대한 우호적인 수용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 동향

연구자 (연도)	조사대상(수)	복지태도 구성요소	영향요인
김영모 (1980)	서울시거주성인 (N=2,000)	복지권, 빈곤, 교육, 주택, 노인문제 등	
이소희·이재연 (1987)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N=400가구)	자유방임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교육, 직업
김상균·정원오 (1995)	20세 이상 전국민 (N=1,198)	복지와 관련된 9개 영역 (의료, 교육, 장애, 실업, 조세, 주택, 자선사업, 평등, 복지와 근면성)	정치적 성향 사회적 계층 주관적 계층판단 소득수준, 직업
김영란 (1995)	서울 및 수도권 20세 이상 남·녀 (N=604)	세금과 복지비용, 공적복지와 사적복지,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태도	계급과 이데올로기
이인재 (1998)	수원지역 주민 (N=373)	교육, 의료, 실업, 주택, 장애인, 노인, 조세 복지와 관련된 편견의식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최균·류진석 (2000)	전국 성인 (N=825)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실천의지, 복지책임주체	
이성균 (2002)	전국성인 (N=1000)	복지책임주체	노동시장에서의 계급적 지위, 계급적 행위, 계급 구성원의 사회적 태도
양옥경 (2002)	서울시민 20~60대기혼 남녀(N=1,131)	복지의식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 복지정책욕구)	가족주의 가치
류진석 (2004)	대전시민 (N=35)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	인구학적 특성, 복지이해관계자, 복지규범 순응 및 가치
안상훈 (2009)	전국민 (한국복지 패널조사자료) (N=1,426)	복지국가의 찬성	성별, 복지지위
김신영 (2009)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N=1,512)	국가의 공적 책임,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자, 소득격차, 주거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건강만족도 생활만족도, 사회실패 노동시장 참여여부
류만희·최영 (2009)	2006 한국복지 패널 2차년도자료 (N=1,677)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계급,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김영순·여유진 (2010)	2007 복지패널 부가조사 (N=1,694)	정부지출 확대	계급
김은지·안상훈 (2010)	20세 이상 전국민(2006) (N=1,202)	정부책임영역	매개변수; 복지지위 독립변수; 가족돌봄 욕구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2007) (N=1,693)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 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함철호·이중섭 (2010)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조사자료 (2007) (N=1,694)	수급자에 대한 인식, 복지 지출에 대한 의견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지역주의
김신영	한국종합사회	국가의 공적 책임	계층,

(2010)	조사자료,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2006) (N=1,605)		사회적 신뢰, 만족도
노대명·전지현 (2011)	20세 이상 전국 성인 대상 한국인의 복지 의식조사(2011) (N=1,500)	재분배원칙과 복지제도, 복지재정확충에 따른 조세부담의식, 복지원리에 대한 선호	자기이해, 교육기간, 이념, 사회신뢰 등
김희자 (2013)	한국복지패널 (2010) (N=2,132)	기존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지출확대, 복지영역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보편주의에 대한 확대	교육, 계급
이준용 (2015)	안양시민 (N=623)	복지재정확충,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	매개변수:분배정의, 독립변수:사회갈등
김상미 (2015)	제주 지역 중·고·대학생 (N=1,001)	실천의지, 국가책임, 효과성	인권의식, 정치효능감, 대중매체 이용경험
강정규 (2015)	경기도 부천시민 (N=358)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공공복지확대에 대한 입장, 공공복지 재원 부담 의사, 복지 책임 주체 의식	매개변수:사회적자 본 독립변수:지역사회 생활환경
송혁 (2017)	한국복지패널 (2006~2013) (N=2,462)	정부책임확대, 정부지출확대, 중세태도	선별적·보편적 복지제도 수혜경험
김건희 (2018)	한국복지패널 (2016) (N=3,375)	복지지출확대 복지증세확대	복지부담금,가치관, 정치성향,공적이전 소득 복지서비스경험
고관우,남진열 (2018)	제주지역 대학생, 대학생의 부모 (N=435)	복지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의식, 복지책임인식 (일자리,실업,노후,보육, 의료,소득격차)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김보미 (2019)	한국복지패널 (2016) (N=3,296)	소득재분배 국가책임, 보편과 선별, 성장과 분배, 사회복지재정확보, 사회복지정책 국가책임	사회적배제 빈곤원인인식
장홍덕 (2020)	한국복지패널 (2016) (N=3,196)	연금,교육,의료,주거,빈곤, 실업,장애인,노인,아동 에 대한 지출 태도	정치성향

출처 : 이준용(2015), 김상미(2015)를 재구성.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세대 간 복지태도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 연령기의 대학생 160명과 40~50대의 중장년 160명을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6일 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대학생세대 153부, 중장년세대 151부 총 304부를 회수하여 설문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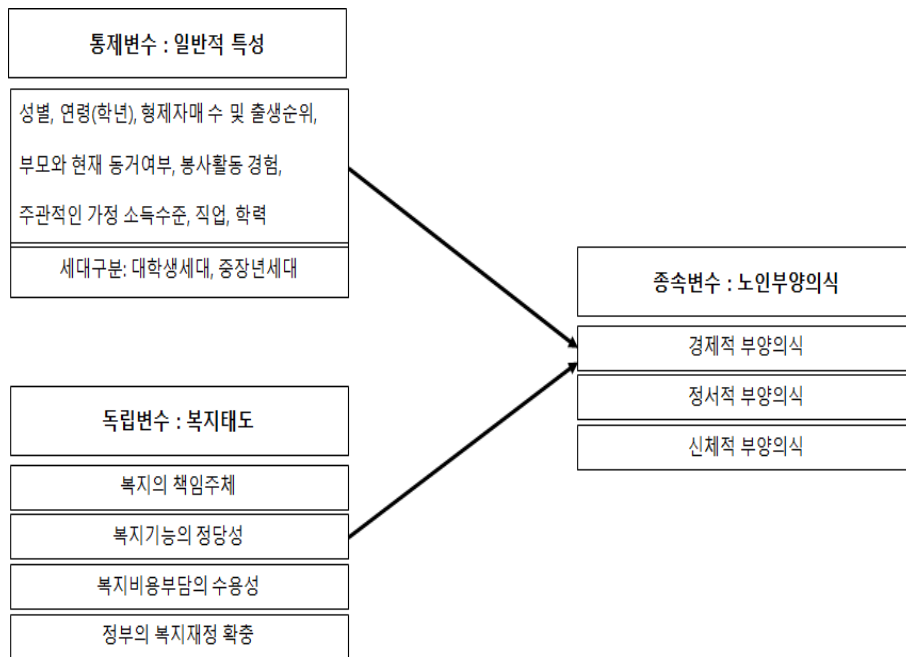
<표 5>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구 분	배포한 설문지	회수한 설문지	최종분석활용 설문지
대학생 세대	160부	153부(95.6%)	153부
중장년 세대	160부	151부(94.4%)	151부
전 체	320부	304부(95.0%)	304부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제주지역의 대학생세대와 중장년세대 간 복지태도, 노인부양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세대과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어떠한가?

가설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책임의 주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은 어떠한가?

가설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대학생의 복지태도의 하위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각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장년의 복지태도의 하위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각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복지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척도로 구성하였고, <표 6>와 같다.

<표 6> 척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측정항목		신뢰도	
			선행 연구	본 연구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학년), 형제자매의 수와 출생순위, 부모와 동거여부, 봉사활동경험, 직업, 학력 가정의 주관적 소득 수준		-	-
노인 부양 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1, 2, 3, 4, 5	.869	.816
	정서적 부양의식	6, 7, 8, 9, 10, 11	.814	.819
	신체적 부양의식	12, 13, 14, 15, 16	.826	.840
복지 태도	복지의 책임주체	17, 18, 19, 20, 21, 22, 23, 24	.800	.906
	복지기능의 정당성	25, 26, 28, 29*, 30*, 31*	.773	.700
		27, 32*	-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33, 34, 35, 36, 37	.826	.635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38, 39, 40, 41, 42, 43, 44, 45	.844	.903	

* 역채점문항: 29, 30, 31, 32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부양의식이다. 노인부양의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따라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부양은 현물이나 물질은 공급받는 형태이고,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정서적 위로와 인격적 대우를 제공하는 의식을 말한다. 신체적 부양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척도는 Turkman과 Lorge(1981)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심은지(1998), 박수진(2018)이 사용한 부양의식에 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경제적 부양의식 5문항, 정서적 부양의식 6문항, 신체적 부양의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부양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수진(2018)의 연구에서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경제적 부양의식 .869, 정서적 부양의식 .814, 신체적 부양의식 .82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경제적 부양의식 .816, 정서적 부양의식 .819, 신체적 부양의식 .840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복지태도이다. 복지태도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며, 복지의 책임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을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복지태도에 관한 척도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류진석(2004)를 바탕으로 이준용(2015)이 사용한 복지태도에 관한 척도를 보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복지의 책임주체(8문항), 복지기능의 정당성(8문항),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5문항),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8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복지의 책임주체에서는 선행연구의 척도와 달리 정부의 책임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복지기능의 정당성에서는 문항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일부 반전된 문항을 분석 시 재반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류진석(2004)의 연구에서 복지태도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복지기능의 정당성 .7197,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8266, 복지공급의 책임성 .8001, 복지재정

의 확충 .8931로 나타났다. 이준용(2015)의 연구에서 복지태도 하위요인의 신뢰도의 경우는 복지기능의 정당성 .773,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826, 복지재정확충 .844, 전체문항은 .84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복지의 책임주체 .906, 복지기능의 정당성 .700,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635, 정부의 복지재정확충 .903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형제자매 수 및 출생순위, 봉사활동경험, 부모와 현재 동거여부, 가정의 주관적 소득수준, 직업, 학력을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부모와 현재 동거여부는 이분적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조사 대상이 중장년 세대일 경우에 4개 영역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였으며, 대학생 세대의 경우에는 연령대 대신 현재 학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형제자매의 수와 출생순위는 직접 기입하게 한 후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봉사활동경험은 '없음', '3회 이하', '4회~9회', '10회 이상'의 4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 '중하', '중', '중상', '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장년 세대에게는 대학생 세대와 달리 직업과 학력을 물어보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직업은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for WIN 23.0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노인부양의식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복지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노인부양의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복지태도 및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의 변수인 복지태도의 각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의 각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복지태도의 하위요인인 복지의 책임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의 확충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성별의 경우 대학생 세대는 남자 65.4%, 여자 34.6%이며, 중장년 세대는 남자 41.1%, 여자 58.9%이다. 대학생 세대의 학년은 1학년 11.8%, 2학년 29.4%, 3학년 43.1%, 4학년 15.7%이며, 중장년 세대의 연령에서는 40~44세 27.2%, 45~49세 29.8%, 50~54세 19.9%, 55~59세 23.2%로 나타났다.

대학생 세대의 형제자매 수는 2명 46.6%, 3명 이상 43.2% 순이며, 출생순위는 첫째 42.1%, 둘째 40.0%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중장년 세대의 형제자매 수는 3명 이상 78.0%, 2명 20.6% 순이며, 출생순위는 셋째 이상 41.8%, 둘째 30.5%, 첫째 27.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와 동거 여부는 대학생 세대는 80.4%가 동거 중으로 응답했으나, 중장년 세대는 81.9%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세대의 봉사활동 경험은 연 3회 이하 41.8%, 없음 38.6% 순이며, 중장년 세대의 경우도 연 3회 이하 39.9%, 없음 33.1%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연 10회 이상 경험에서는 중장년 세대(10.8%)가 대학생 세대(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가정의 소득수준에서 대학생 세대는 '중' 57.2%, '중하' 19.1%, '중상' 13.8% 순이며, 중장년 세대는 '중' 53.0%, '중하' 25.5%, '중상' 16.1% 순으로 양세대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장년 세대의 직업은 전문직 27.5%, 사무직 23.5%, 기타 20.1%, 전업주부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 세대의 학력은 대졸 59.3%, 대학원이상 22.1%, 고졸이하 18.6%의 분포도를 보였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대학생 세대		중장년 세대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00	65.4	62	41.1	162	53.3
	여자	53	34.6	89	58.9	142	46.7
	전 체	153	100.0	151	100.0	304	100.0
학년 (연령)	1학년 / 40~44세	18	11.8	41	27.2	59	19.4
	2학년 / 45~49세	45	29.4	45	29.8	90	29.6
	3학년 / 50~54세	66	43.1	30	19.9	96	31.6
	4학년 / 55~59세	24	15.7	35	23.2	59	19.4
	전 체	153	100.0	151	100.0	304	100.0
형제 자매 수	1명	15	10.3	2	1.4	17	5.9
	2명	68	46.6	29	20.6	97	33.8
	3명 이상	63	43.2	110	78.0	173	60.3
	전 체	146	100.0	141	100.0	287	100.0
출생 순위	첫째	61	42.1	39	27.7	100	35.0
	둘째	58	40.0	43	30.5	101	35.3
	셋째 이상	26	17.9	59	41.8	85	29.7
	전 체	145	100.0	141	100.0	286	100.0
부모와 동거여 부	유	123	80.4	27	18.1	150	49.7
	무	30	19.6	122	81.9	152	50.3
	전 체	153	100.0	149	100.0	302	100.0
봉사 활동 경험	없음	59	38.6	49	33.1	108	35.9
	연 3회 이하	64	41.8	59	39.9	123	40.9
	연 4회~9회	25	16.3	24	16.2	49	16.3
	연 10회 이상	5	3.3	16	10.8	21	7.0
	전 체	153	100.0	148	100.0	301	100.0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 준	하	11	7.2	8	5.4	19	6.3
	중하	29	19.1	38	25.5	67	22.3
	중	87	57.2	79	53.0	166	55.1
	중상	21	13.8	24	16.1	45	15.0
	상	4	2.6	0	0.0	4	1.3
전 체	152	100.0	149	100.0	301	100.0	

현재 직업	경영·관리직	-	0.0	1	0.7	1	0.7
	사무직	-	0.0	35	23.5	35	23.5
	자영업·자유직	-	0.0	8	5.4	8	5.4
	판매·서비스직	-	0.0	9	6.0	9	6.0
	단순노무직	-	0.0	8	5.4	8	5.4
	전문직	-	0.0	41	27.5	41	27.5
	전업주부	-	0.0	17	11.4	17	11.4
	기타	-	0.0	30	20.1	30	20.1
전 체		-	0.0	149	100.0	149	100.0
학력	고졸이하	-	0.0	27	18.6	27	18.6
	대졸	-	0.0	86	59.3	86	59.3
	대학원 이상	-	0.0	32	22.1	32	22.1
	전 체	-	0.0	145	100.0	145	100.0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은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이며, 주요 변인의 점수 분포는 <표 8>와 같다.

노인부양의식의 전체 평균값은 3.78(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670)이며, 하위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은 3.61(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854), 정서적 부양의식은 3.72(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725), 신체적 부양의식은 4.02(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727)로 나타났다.

복지태도의 전체 평균값은 3.48(최소값=2, 최대값=5, 표준편차=.565)이며, 하위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는 3.61(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795),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3.29(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544),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3.27(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866),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3.75(최소값=2, 최대값=5, 표준편차=.693)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변인의 점수 분포

변인		빈도 (명)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노인 부양 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304	1	5	3.61	.854
	정서적 부양의식	304	1	5	3.72	.725
	신체적 부양의식	304	1	5	4.02	.727
	노인부양의식 전체	304	1	5	3.78	.670
복지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	304	1	5	3.61	.795
	복지기능의 정당성	304	1	5	3.29	.544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304	1	5	3.27	.866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304	2	5	3.75	.693
	복지태도 전체	304	2	5	3.48	.565

2. 주요변인의 집단 간 차이 검증

1) 세대 간 주요변인의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집단 간 차이는 <표 9>와 같다. 경제적 부양의식은 중장년세대(M=3.75)가 대학생세대(M=3.46)보다 높았고($t=-2.978, p<.01$), 정서적 부양의식은 중장년 세대(M=3.88)가 대학생 세대(M=3.57)보다 높았으며($t=-3.792, p<.001$), 신체적 부양의식은 중장년 세대(M=4.17)가 대학생 세대(M=3.87)보다 높게($t=-3.638, p<.001$) 나타나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 3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책임의 주체는 중장년 세대(M=3.65)가 대학생 세대(M=3.57)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중장년 세대(M=3.39)가 대학생 세대(M=3.18)보다 높았고($t=-3.446, p<.01$),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중장년 세대(M=3.52)가 대학생 세대(M=3.03)보다 높았으며($t=-5.059, p<.001$),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중장년 세대(M=3.83)가 대학생 세대(M=3.67)보

다 높게($t=-2.031, p<.05$)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세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구분	대학생세대				중장년세대				t/F	p	
	빈도	평균(M)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빈도	평균(M)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	경제적 부양의식	153	3.46	.887	.072	151	3.75	.795	.065	-2.978**	.003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153	3.57	.724	.059	151	3.88	.695	.057	-3.792***	.000
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153	3.87	.760	.061	151	4.17	.661	.054	-3.638***	.000
	복지책임의 주체	153	3.57	.810	.065	151	3.65	.780	.063	-.922	.357
복지태도	복지기능의 정당성	153	3.18	.429	.035	151	3.39	.624	.051	-3.446**	.001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153	3.03	.719	.058	151	3.52	.934	.076	-5.059***	.000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153	3.67	.626	.051	151	3.83	.748	.061	-2.031*	.043

* $p<.05$, ** $p<.01$, ***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구분하고 주요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수가 적은 일반적 특성의 변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빈도가 도출되도록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중장년의 연령은 40대와 50대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의 학년은 1,2학년과 3,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형제자매 수는 2명 이하와 3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봉사활동경험은 활동경험의 유,무로 조정하였다.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은 ‘하’와 ‘중하’, ‘중’, ‘중상’과 ‘상’의 3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1) 노인부양의식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가.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하위 요인의 차이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조금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에서는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대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봉사활동경험여부에서도 봉사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부양의식에서는 ‘하’와 ‘중하’로 응답한 대학생 세대의 평균은 3.67(SD=.720)에 비해 ‘중상’과 ‘상’으로 응답한 대학생 세대의 평균은 3.86(SD=.636)으로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695, p<.05$).

나.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하위 요인의 차이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하위 요인은 경제적 부양의식으로 남자 평균 3.93(SD=.770)이 여자 평균 3.63(SD=.793)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303, p<.05$).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의식은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4.04(SD=.7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3.67(SD=.790)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74, p<.05$). 정서적 부양의식은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4.27(SD=.527)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3.79(SD=.702)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389, p<.01$). 신체적 부양의식은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4.49(SD=.496)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4.09(SD=.671)보다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t=2.980, p<.01$).

봉사활동경험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의 차이에서는 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3.84(SD=.763)이 봉사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3.54(SD=.836)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2.136, p<.05$).

<표 10>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 분석

구 분		n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자	100	3.46(.882)	.024	3.57(.658)	-.006	3.83(.754)	-.876
	여자	53	3.46(.907)		3.57(.841)		3.95(.773)	
학년	1,2학년	63	3.48(.895)	.230	3.60(.791)	.379	3.86(.779)	-.132
	3,4학년	90	3.45(.887)		3.55(.677)		3.88(.751)	
형제자매 수	2명 이하	83	3.46(.917)	.324	3.64(.739)	1.575	3.89(.717)	.371
	3명 이상	63	3.41(.856)		3.45(.669)		3.84(.815)	
출생 순위	첫째	61	3.42(.752)	.016	3.44(.729)	1.557	3.80(.820)	.783
	둘째	58	3.44(.962)		3.67(.719)		3.88(.735)	
	셋째 이상	26	3.45(1.053)		3.58(.655)		4.02(.675)	
부모동거 여부	유	123	3.53(.848)	1.870	3.61(.739)	1.476	3.91(.751)	1.180
	무	30	3.19(1.004)		3.39(.638)		3.73(.792)	
봉사활동 경험 ¹⁾	유	94	3.50(.853)	-.654	3.62(.638)	-1.006	3.92(.714)	-.944
	무	59	3.40(.944)		3.49(.843)		3.80(.829)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하,중하	40	3.54(.810)	.538	3.67(.720)	3.695*	4.02(.640)	1.058
	중	87	3.40(.934)		3.45(.716)		3.84(.785)	
	중상,상	25	3.57(.869)		3.86(.636)		3.77(.848)	

*p<.05, **p<.01, ***p<.001, 1)더미 봉사활동경험: 유=0, 무=1

<표 11>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 분석

구 분		n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자	62	3.93(.770)	2.303*	3.94(.627)	.939	4.24(.582)	-1.058
	여자	89	3.63(.793)		3.83(.738)		4.12(.711)	
연령	40대	86	3.66(.813)	-1.708	3.89(.718)	.249	4.21(.779)	.084
	50대	65	3.88(.759)		3.86(.668)		4.12(.705)	
형제자매 수	2명 이하	31	3.63(.753)	-.960	3.76(.748)	-.936	4.10(.710)	-.399
	3명 이상	110	3.78(.814)		3.89(.702)		4.15(.654)	
출생 순위	첫째	39	3.78(.852)	.547	3.91(.711)	.621	4.32(.576)	2.015
	둘째	43	3.83(.663)		3.93(.694)		4.05(.701)	
	셋째 이상	59	3.67(.863)		3.79(.729)		4.08(.680)	
부모동거 여부	유	27	4.04(.763)	2.174*	4.27(.527)	3.389**	4.49(.496)	2.980**
	무	122	3.67(.790)		3.79(.702)		4.09(.671)	
봉사활동 경험 ¹⁾	유	99	3.84(.763)	-2.136*	3.92(.677)	-1.245	4.22(.625)	-1.667
	무	49	3.54(.836)		3.77(.741)		4.03(.711)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하,중하	46	3.67(.849)	.343	3.87(.614)	.301	4.18(.648)	.298
	중	79	3.76(.786)		3.85(.746)		4.13(.687)	
	중상,상	24	3.82(.737)		3.97(.707)		4.24(.607)	

*p<.05, **p<.01, ***p<.001 , 1)더미 봉사활동경험: 유=0, 무=1

(2) 복지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가.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하위 요인의 차이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봉사활동경험여부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조금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하위요인은 복지기능의 정당성과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집단의 복지기능의 정당성 평균은 3.22(SD=.438)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3.01(SD=.353)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41, p<.05$). 부모와 동거라고 응답한 집단의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평균은 3.72(SD=.605)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3.43(SD=.676)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2.301, p<.05$). 대학생의 부모동거여부의 빈도차이가 크다는 한계는 고려 할 사항이다.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하위요인은 복지책임의 주체와 복지기능의 정당성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하'와 '하' 로 응답한 집단의 복지책임의 주체 평균은 3.74(SD=.753)이며, '중상'과 '상'으로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3.22(SD=1.06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316, p<.05$).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하'와 '하' 로 응답한 집단의 복지기능의 정당성 평균은 3.29(SD=.427)이며, '중상'과 '상'으로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3.02(SD=.556)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169, p<.05$).

나.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하위 요인의 차이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성별, 형제자매 수, 부모동거여부, 봉사활동경험여부,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복지책임의 주체에서 40대의 평균은 3.82(SD=.713)로 50대의 평균 3.43(SD=.815)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3.079$, $p<.01$), 연령에 따른 복지기능의 정당성에서 40대의 평균은 3.50(SD=.617)로 50대의 평균 3.25(SD=.609)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t=2.422$, $p<.05$).

연령에 따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에서 40대의 평균은 3.65(SD=.937)로 50대의 평균 3.34(SD=.9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096$, $p<.05$), 연령에 따른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서 40대의 평균은 3.94(SD=.711)로 50대의 평균 3.68(SD=.777)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다($t=2.110$, $p<.05$).

출생순위에 따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에서 첫째의 평균은 3.71(SD=.914)로 둘째의 평균 3.64(SD=.930), 셋째 이상의 평균 3.24(SD=.943)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t=3.712$, $p<.05$).

<표 12> 대학생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 분석

구 분		n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자	100	3.52(.817)	-.887	3.16(.384)	.244	3.02(.767)	.089	3.68(.568)	.070
	여자	53	3.65(.797)		3.22(.506)		3.05(.625)		3.64(.726)	
학년	1,2학년	63	3.58(.767)	.170	3.26(.433)	1.959	2.91(.690)	-1.763	3.68(.611)	.277
	3,4학년	90	3.56(.842)		3.13(.420)		3.12(.730)		3.65(.639)	
형제자매 수	2명 이하	83	3.56(.864)	.032	3.17(.465)	.197	2.97(.775)	-1.059	3.64(.651)	-.543
	3명 이상	63	3.55(.759)		3.16(.368)		3.10(.649)		3.70(.594)	
출생 순위	첫째	61	3.55(.816)	.057	3.08(.324)	2.008	3.03(.688)	.018	3.63(.586)	.343
	둘째	58	3.54(.790)		3.22(.511)		3.03(.783)		3.72(.654)	
	셋째 이상	26	3.61(.917)		3.23(.406)		3.00(.702)		3.65(.679)	
부모동거 여부	유	123	3.62(.804)	1.773	3.22(.438)	2.441*	3.01(.725)	-.684	3.72(.605)	2.301*
	무	30	3.33(.802)		3.01(.353)		3.11(.698)		3.43(.663)	
봉사활동 경험 ¹⁾	유	94	3.67(.746)	-1.976	3.20(.461)	-.705	3.08(.732)	-1.047	3.72(.589)	-1.291
	무	59	3.40(.884)		3.15(.376)		2.96(.696)		3.58(.676)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하,중하	40	3.74(.753)	3.316*	3.29(.427)	3.169*	2.98(.719)	.561	3.85(.617)	2.545
	중	87	3.59(.731)		3.18(.379)		3.02(.682)		3.62(.572)	
	중상,상	25	3.22(1.061)		3.02(.556)		3.17(.860)		3.54(.766)	

*p<.05, **p<.01, ***p<.001 , 1)더미 봉사활동경험: 유=0, 무=1

<표 13> 중장년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분석 (2)

구 분		n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성별	남자	62	3.72(.597)	1.017	3.39(.565)	-.036	3.62(.906)	1.166	3.88(.650)	.808
	여자	89	3.60(.885)		3.39(.665)		3.44(.950)		3.79(.811)	
연령	40대	86	3.82(.713)	3.079**	3.50(.617)	2.422*	3.65(.937)	2.096*	3.94(.711)	2.110*
	50대	65	3.43(.815)		3.25(.609)		3.34(.905)		3.68(.777)	
형제자매 수	2명 이하	31	3.75(.584)	1.411	3.46(.691)	.768	3.56(.886)	.448	3.84(.633)	.455
	3명 이상	110	3.57(.815)		3.36(.620)		3.47(.969)		3.77(.778)	
출생 순위	첫째	39	3.78(.712)	2.853	3.38(.673)	.269	3.71(.914)	3.712*	3.97(.726)	2.645
	둘째	43	3.70(.671)		3.44(.643)		3.64(.930)		3.85(.635)	
	셋째 이상	59	3.43(.851)		3.35(.611)		3.24(.943)		3.63(.812)	
부모동거 여부	유	27	3.59(.788)	-.326	3.36(.630)	-.329	3.48(.939)	-.174	3.75(.817)	-.553
	무	122	3.65(.774)		3.41(.628)		3.52(.942)		3.84(.735)	
봉사활동 경험 ¹⁾	유	99	3.62(.781)	.222	3.37(.590)	.264	3.60(.929)	.789	3.85(.748)	.831
	무	49	3.65(.758)		3.45(.700)		3.31(.942)		3.75(.749)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하,중하	46	3.61(.763)	.240	3.49(.641)	.693	3.38(.878)	.923	3.86(.769)	.291
	중	79	3.62(.751)		3.37(.648)		3.53(.977)		3.78(.743)	
	중상,상	24	3.64(.774)		3.33(.526)		3.69(.923)		3.90(.749)	

*p<.05, **p<.01, ***p<.001 , 1)더미 봉사활동경험: 유=0, 무=1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학년),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부모동거여부, 봉사활동경험여부,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과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복지책임의 주체($r=-.133, p<.05$), 복지기능의 정당성($r=-.202, p<.01$),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r=-.119,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동거여부는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r=.19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봉사활동경험여부는 경제적 부양의식($r=.116, p<.05$),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r=.129,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은 복지기능의 정당성($r=-.137,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독립변수의 하위 요인인 복지책임의 주체는 정서적 부양의식($r=.122, p<.05$), 신체적 부양의식($r=.178, p<.01$),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경제적 부양의식($r=.205, p<.01$), 정서적 부양의식($r=.220, p<.01$), 신체적 부양의식($r=.187, p<.01$)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경제적 부양의식($r=.142, p<.05$), 정서적 부양의식($r=.180, p<.01$), 신체적 부양의식($r=.134, p<.05$),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은 경제적 부양의식($r=.164, p<.01$), 정서적 부양의식($r=.204, p<.01$), 신체적 부양의식($r=.291, p<.01$)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4>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08	1												
3	.292**	.097	1											
4	.227**	.006	.463**	1										
5	.186**	-.013	.165**	.153**	1									
6	-.038	.096	.107	-.012	-.011	1								
7	-.007	.008	-.005	.029	-.035	.114*	1							
8	-.044	.027	.082	.020	-.024	.116*	.023	1						
9	.016	-.058	.042	.057	-.015	.101	.034	.658**	1					
10	.047	-.058	.062	.033	.001	.112	-.058	.596**	.670**	1				
11	.011	-.133*	-.029	-.077	-.021	.077	-.079	.070	.122*	.178**	1			
12	.077	-.202**	.032	.085	.074	.000	-.137*	.205**	.220**	.187**	.410**	1		
13	.025	-.076	.115	-.057	.196**	.129*	.082	.142*	.180**	.134*	.450**	.380**	1	
14	-.020	-.119*	.035	-.069	.023	.089	-.079	.164**	.204**	.291**	.602**	.432**	.525**	1

*p<.05, **p<.01, ***p<.001

1=성별, 2=연령(학년), 3=형제자매 수, 4=출생순위, 5=부모동거여부, 6=봉사활동경험여부, 7=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8=경제적 부양의식
9=정서적 부양의식, 10=신체적 부양의식, 11=복지 책임의 주체, 12=복지기능의 정당성, 13=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14=정부의 복지제정 확충

4. 주요변인 간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복지태도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경제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경제적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대학생 세대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 한 결과 복지기능의 정당성($\beta = .203, p < .05$)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세대의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한 결과 성별($\beta = .269, p < .01$), 부모동거여부($\beta = .206, p < .05$), 복지기능의 정당성($\beta = .225, p < .05$)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부양의식은 성별은 남자일 때, 부모와 동거 할 때,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학생 세대는 중장년 세대와 달리 성별과 부모동거여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대학생 세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까지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준비로 인하여 중장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 부양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5> 경제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구 분	대학생 세대				중장년 세대			
	B	S.E	β	t	B	S.E	β	t
(상 수)	1.050	.824		1.274	1.588	.636		2.495*
성별 ¹⁾	.024	.162	.013	.147	.438	.137	.269	3.198**
연령구분	.060	.160	.033	.373	.247	.136	.153	1.813
형제자매 수	-.099	.168	-.055	-.589	.285	.183	.148	1.556
출생순위	.010	.111	.008	.087	-.089	.090	-.091	-.983
부모동거여부 ²⁾	.249	.199	.110	.1251	.431	.166	.206	2.596*
봉사활동유무	.099	.160	.053	.616	.227	.141	.133	1.613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082	.120	.059	.679	.091	.099	.076	.921
복지책임의 주체	-.114	.107	-.104	-1.060	-.110	.133	-.105	-.831
복지기능의 정당성	.427	.201	.203	2.122*	.284	.120	.225	2.372*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026	.111	-.021	-.232	.089	.100	.105	.887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276	.136	.194	2.035	-.049	.149	-.046	-.330
	R ² =.107 , 수정된 R ² =.032 , F=1.431 , p=.166 , Durbin-Watson=1.433				R ² =.207 , 수정된 R ² =.139 , F=3.047 , p=.001 , Durbin-Watson=1.795			

*p<.05, **p<.01, ***p<.001, 1) 더미성별: 남=1, 여=0, 2) 더미부모동거여부: 유=1. 무=0

2) 정서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대학생 세대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 한 결과 형제자매 수($\beta = -.228$, $p < .05$)는 부(-)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beta = .207$, $p < .05$)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세대의 정서적 부양의식은 형제자매 수가 적을수록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을 지지하는 인식이 강할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이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형제자매의 수가 적기에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유대감이 높지만,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에 공적부양체계를 지지하는 현재 대학생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년 세대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 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 세대와는 달리 중장년 세대는 전통적인 효사상에 익숙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기에 보편적으로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게 형성되며, 이는 일반적 특성이나 복지태도 등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6> 정서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구 분	대학생 세대				중장년 세대			
	B	S.E	β	t	B	S.E	β	t
(상 수)	1.741	.635		2.739*	2.839	.576		4.931***
성별 ¹⁾	-.022	.125	-.014	-.173	.149	.124	.103	1.204
연령구분	-.032	.123	-.022	-.258	-.036	.123	-.025	-.293
형제자매 수	-.325	.130	-.228	-2.500*	.245	.166	.143	1.478
출생순위	.153	.086	.159	1.778	-.089	.082	-.103	-1.088
부모동거여부 ²⁾	.138	.153	.077	.900	.543	.150	.292	3.612
봉사활동유무	.134	.124	.091	1.080	.083	.127	.055	.652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125	.093	.114	1.352	.030	.089	.028	.333
복지책임의 주체	.015	.083	.017	.181	-.195	.120	-.210	-1.623
복지기능의 정당성	.191	.155	.115	1.230	.190	.108	.170	1.755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002	.085	.002	.021	.119	.091	.159	1.312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234	.105	.207	2.234*	.032	.135	.033	.236
	R ² =.153 , 수정된 R ² =.083 , F=2.172 , p=.020 , Durbin-Watson=1.869				R ² =.173 , 수정된 R ² =.104 , F=2.465 , p=.008 , Durbin-Watson=2.237			

*p<.05, **p<.01, ***p<.001, 1) 더미성별: 남=1, 여=0, 2) 더미부모동거여부: 유=1. 무=0

3) 신체적 부양의식의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들이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와 같다.

대학생 세대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 한 결과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beta = .323, p < .01$)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신체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세대와 달리 정부의 재정확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부양의 책임과 역할이 개인·가족에서 국가·사회로 비중이 옮겨가는 것을 인식하고 공적 부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장년 세대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회귀분석 한 결과 부모동거여부($\beta = .253, p < .01$)의 영향력이 정(+)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세대의 신체적 부양의식은 부모와 동거 할 때가 신체적 부양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세대와 달리 정부의 재정확충에 따른 신체적 부양의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이는 신체적 부양에 대한 공적부양체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7> 신체적 부양의식 회귀분석

구 분	대학생 세대				중장년 세대			
	B	S.E	β	t	B	S.E	β	t
(상 수)	2.141	.679		3.151**	3.183	.543		5.869***
성별 ¹⁾	-.138	.133	-.086	-1.036	.132	.117	.098	1.128
연령구분	.070	.132	.045	.534	-.079	.116	-.059	-.675
형제자매 수	-.156	.139	-.102	-1.126	.170	.156	.107	1.089
출생순위	.114	.092	.110	1.236	-.091	.077	-.114	-1.185
부모동거여부 ²⁾	.094	.164	.049	.575	.437	.142	.253	3.081**
봉사활동유무	.126	.132	.080	.950	.165	.120	.117	1.370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	-.017	.099	-.014	-.168	-.004	.084	-.004	-.043
복지책임의 주체	-.021	.088	-.023	-.241	-.042	.113	-.048	-.369
복지기능의 정당성	.205	.166	.114	1.235	.054	.102	.052	.531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175	.091	-.166	-1.914	.059	.085	.084	.685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393	.112	.323	3.514**	.082	.127	.092	.646
	R ² =.166 , 수정된 R ² =.096 , F=2.386 , p=.010 , Durbin-Watson=2.117				R ² =.149 , 수정된 R ² =.076 , F=2.043 , p=.029 , Durbin-Watson=1.961			

*p<.05, **p<.01, ***p<.001, 1) 더미성별: 남=1, 여=0, 2) 더미부모동거여부: 유=1. 무=0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현재의 부양의무세대인 중장년과 미래의 부양의무세대인 대학생의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민감한 중장년 세대가 대학생 세대에 비해 복지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 세대는 부모동거여부에 따라 복지기능의 정당성과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 동거할 때,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부의 재정 확충에 호의적인 인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세대는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책임의 주체와 복지기능의 정당성도 각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책임의 주체는 정부이며, 복지의 긍정적인 면과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중장년 세대는 연령에 따른 복지태도의 4개의 하위 요인 모두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중장년 중 40대가 50대에 비해 복지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 세대는 대학생 세대와는 달리 출생순위에 따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부양, 양육, 노후준비의 삼중고로 인하여 복지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세대 간 비교에서는 현재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중장년 세대가 대학생 세대에 비해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양의식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에서 대학생 세대는 주관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서적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는 부모동거여부에 따라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부모와 동거일 때 각각의 부양의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는 봉사활동경험유무와 성별에 따라 경제적 부양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봉사활동경험이 있을 때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복지태도의 하위 요인이 노인부양의식의 각각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세대는 복지기능의 정당성이, 중장년 세대는 성별, 부모동거여부, 복지기능의 정당성이 경제적 부양의식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경제적 부양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 세대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전통적인 효문화에서 내려온 장자의 부양책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양의식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부양의 비용부담을 자연스럽게 책임지게 되어 형성된 결과로 파악된다.

대학생 세대의 정서적·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과 제도의 확장이 부양의무자의 직접적인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신체적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기에 노인부양과 관련된 공적부양의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세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할 때 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대학생 세대의 형제자매 수가 정서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점은 후속 연구에서 다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중장년 세대보다는 대학생 세대의 복지태도가 낮게 형성되었다. 복지의 책임주체를 정부로 보고 정부의 재정확충에 대해서 대학생 세대는 중장년 세대와 비슷한 인식을 하였지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비용부담 의지에서는 중장년 세대보다 낮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 세대가 갖고 있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과 경쟁, 국가재정의 악화 우려, 조세와 사회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미래의 부양의무자인 대학생 세대의 복지 친화적인 태도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교육, 다양한 매체와 제도를 통하여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인식할 수 있게 돕고, 대학생 세대들이 겪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은 전통적인 효 사상과 가족 문화가 쇠퇴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려가 되었으나, 노인부양의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2019)에 의하면 노인부양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보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노인부양의식은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부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부양에서 가족의 역할과 비중은 높기에, 공적부양체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범위를 재해석하고 확대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함으로써 노인 문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인 기초연금, 정서적 지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체적 지원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적부양체계의 수립과 일원화된 제도와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상호 간 영향을 주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부양의 패러다임이 가족 책임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현실에서 공적부양체계는 필수적이다. 공적부양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에는 조세와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양의무세대인 중장년과 미래의 부양의무세대인 대학생의 신뢰와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중장년 세대와 대학생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도 병행되어 상호 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중장년 세대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되고, 대학생 세대는 지금의 중장년 세대처럼 부양을 책임지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 간 통합과 이해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 친화적인 태도에 따른 공적부양체계의 필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공적부양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제주지역의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수집된 표본의 수가 적어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지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전 세대의 복지태도를 알아보고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고양: 공동체.
- 강선아. 201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부모 부양의식”. 인
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관우·남진열. 2019. “대학생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이 노
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47: 55-79.
- 고관우·남진열. 2018. “대학생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성향이 복지의식과 국가의
복지책임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8: 123-158.
- 권기갑. 2009.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권중돈·김동배.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가현. 2017. “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나래. 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사현. 2010.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동 인구
및 비노동 인구에 대한 복지 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학』 25: 1-33.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
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6.
- 김영란. 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 9: 229-249.
- 김영순·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109-142.
- 김영순·여유진. 2007. “한국인의 복지태도 탈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 『2007한국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7-306.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탈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와 일반논문』 91: 211-240.
- 김용순. 2001.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05: 62-79.
- 김지영. 2001. “대학생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문미경·김은경·김인순·장윤선·전영평·주재복·정희성·김홍원·변화순·박홍엽·최인재. 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0(2): 35-68.
- 노대명·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6(4): 79-101.
- 박문규. 2007. “여대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왕동·정미화·이희숙. 2014. “대학생의 노부모부양 및 재산 상속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연구논총』 18(1): 185-197.
- 박민선. 2020.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적고립이 노인차별행동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서은영·정미영. 2015. “베이비붐세대의 성별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7(3): 314-324.

- 박수진. 2018. “성안자녀의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 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서울: 나남출판.
- 박한준·김보기. 2014. “중장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163-183.
- 서영지(2020.05.18.). “문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더 발전시키겠다”.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4141.html>
- 서용숙. 2014. “대학생들의 부모-자녀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희영. 2014. “가족구조의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조부모의 친밀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근자. 2004.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0. “경제위기시대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관점에 대한 소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11.
- 심은지. 1998. “노인부양의식의 세대간 비교 연구 :부양예비세대,부양세대,피부양세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승현. 2016. “세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아영. 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급간 비교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순. 2006. “맞벌이 여성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신윤정·강혜규·김정선·여유진·박종서·홍영란. 2015.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록·김형관(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상림·김두섭. 2002. “세대 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5(1): 83-111.

- 이신호. 2004.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0. “한국인의 복지 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호. 2005. “가족관계 및 균형가족이 대학생의 부모부양 의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해. 2018.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O2O서비스 이용의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경·강은나·김경래·주보혜·고영호·김진현·남재량·문종철·백혜연·이동민·조현승·김세진. 20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재. 1998.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 85-110.
- 이인정·최해경. 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이정화. 1999.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부담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용. 2015.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우·정지웅·김연신·신현석·박종미·김희연. 2012.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호정. 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선미·하규수. 2015.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은퇴 후 주거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6(11): 8074-8088.
- 임양희. 2009. “세대차이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방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표. 2005. “부모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SERI 49-75.
-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

- 구한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선·이종렬·박천만. 2011. “대학생의 노인부양과 Care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 『보건행정학회』 21(1): 93-114.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조지현. 2011.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진달래.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최덕경. 201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양서원.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최윤지(201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친밀감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와 질과 부양행동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29(2): 611-627.
- 최향순·송용찬. 2011. “정치·경제·문화적 가치의 세대 간 인식 격차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5(4): 111-132.
-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9. 장애인구특별추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5호.

- Andreß, H. and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ergman, L. F. Syne. S. L. 1984. Assessing the phygical Health Effects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nuual Review of public Health*. 5. 412-432.
- Blekesaune, Morten and Jill Quadagno.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bopsycbiatry*. 44: 9-27.
- Briggs, Asa. 1961.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
- Cicirelli, V. 1983. A comparison of helping to elderly parents children with intact an disrupted marriages. *The Gerontologist*. 23: 478-482.
- Drentea, P. 2007. Caregiving In G. Ritzer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Blackwell Reference Online.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Publishing.
- Kaplan B. H., Cassel J. C., Gore S. (1982).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 Marias, J. 1970. *Generations: A historical method*. Not Avail.
- Mannheim, K. 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2.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53-74.
- Taylor-Gooby, P.(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Abstract>

**The Effects of Generational Welfare Attitudes on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 Focus on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in Jeju**

Kim, Kyeong Beo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between the middle-aged generation with the current duty to support the elderly and college students with the future duty to support the elderl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welfare attitudes on their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the research model comprised the subfactors of welfare attitudes and the subfactors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The subfactors of welfare attitudes included the main agent responsible for welfare, legitimacy of welfare functions, acceptability of bearing welfare costs, and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welfare budgets. The subfactors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cluded the awareness of economic support, awareness of emotional support, and awareness of physical support. The study involved 304 subjects comprised of 153 college students and 151 middle-aged adults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showed relatively high-level welfare attitudes, but the middle-aged adults, who were typically sensitive to social welfare, exhibited higher-level welfare attitudes than college students in all subfactors. The college students who lived together with their parents exhibited preferences for welfare and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government's budget expansion. In the middle-aged generation, those in their 40s showed more welfare-friendly attitudes than those in their 50s.

Second,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had relatively high levels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A generational comparison showed that middle-aged people with the current duty to support the elderly exhibited an overall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than college students in all subfactors of economic, emotional, and physical support for the elderly. The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subjective household incomes showed corresponding higher levels of awareness of emo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For the middle-aged adults, those who lived together with their parents showed an overall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 addition, those with a volunteer experience exhibited an overall high level of awarenes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elderly. In terms of gender, men ha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elderly.

Third,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welfare attitudes on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The positive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on welfare influenced their formation of awarenes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elderly.

When college students had positive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welfare budgets, it affected their awareness of emotional and physical support for the elderly.

The incorporation of these findings indicates the presence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ttitudes on th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This study will become valuable data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Jeju region when combined with the follow-up research that will compensate for the current inadequate areas.

Key words: Welfare attitude,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Elderly, College Students, the Middle Aged Adults

< 부록 >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세대 간 복지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더라도 정확하고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귀하께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대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관우
연구자: 김경범
(T.010-0000-0000, k*****@****.net)

I. 다음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 경제적 부양의식에 대해서 >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부모님에게 매일 일정액의 용돈을 드려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의 병원비는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원하시는 의복이나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의 취미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금전적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충돌은 어떤 경우라도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정서적 부양의식에 대해서 >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부모님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가능한 자주 말동무를 해드려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집안의 대소사를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 옛날방식을 고집하시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부모님을 위해 양보하도록 설득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여행이나 외식 할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이 나로 인해 서운해 하신다면 바로 풀어드리도록 노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 신체적 부양의식에 대해서 >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안에서의 거동을 도와드려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집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가사 일이 과중하지는 않은지 신경을 써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대신 일을 해드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의 영양섭취나 건강상태를 자주 체크하고 신경을 써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현재의 생활방식이 부모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복지의 책임주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실업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노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교육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복지기능의 정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복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7	복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복지는 빈부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복지가 확대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복지는 자립보다 의존성을 높인다.	①	②	③	④	⑤
31	복지가 확대될수록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복지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감소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복지비용부담에 대하여 귀하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번호	비용부담의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다른 분야보다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위험에 잘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번호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실업자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노인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장애인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주거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교육에 대해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생용>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① 대학 1학년 ② 대학 2학년 ③ 대학 3학년 ④ 대학 4학년
3. 귀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십니까?	() 남 () 녀 중 () 번째
4. 부모와 현재 동거여부	① 유 ② 무
5. 봉사활동 경험	① 없음 ② 연 3회 이하 ③ 연 4회~9회 ④ 연 10회 이상
6.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귀하 가정의 소득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V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장년용>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① 40~44세 ② 45~49세 ③ 50~54세 ④ 55~59세
3. 귀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십니까?	() 남 () 녀 중 () 번째
4. 부모와 현재 동거여부	① 유 ② 무
5. 봉사활동 경험	① 없음 ② 연 3회 이하 ③ 연 4회~9회 ④ 연 10회 이상
6.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귀하 가정의 소득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7. 현재직업	① 경영·관리직 ② 사무직 ③ 자영업·자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단순노무직 ⑥ 전문직 ⑦ 전업주부 ⑧ 기타
8. 학력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